

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합류 ... ‘호남 목소리 대변자’ 주승용 의원 인터뷰

“호남 정신이 ‘국민의당’ 토대돼야”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는 지난해 4·29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전정배 의원의 당선과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가 실질적 계기가 됐다. 특히, 주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호남 민심의 엄중함을 전하는 한편,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통한 내부 통합을 강력 주장하면서 당내 주류 세력과 대적점에 섰다. 두 차례나 최고위원직을 던진 주 의원의 정치적 투쟁은 호남 민심을 움직여 야권 재편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직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한 심경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결국 탈당했다. 심경은.▲정치인이 탈당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가 민심을 이기는 법은 없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민심을 방향타 삼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했다. 작잡하고 만감이 교차한다.
-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지도부와 강경 대립했다.▲두렵기도 했다. 분열은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담도 컸고 동료 의원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피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친노 패권주의로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어렵다는 절박함을 보였다. 호남 민심의 창구를 맡고 있는 최고위원으로 이를 전달하고 관찰해야 했다.
-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을 텐데.▲문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도 했다. 주류 진영 인사들에게도 함께 승리하는 길을 만들자고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패권주의의 벽은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 최고위원직을 던진 후, 여수에 집거할 때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에 한동안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까지도 통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 더민주의 현실을 진단한다면.▲나를 포함한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리더십 부재와 친노 패권주의가 분열의 출발이며 원인이다.
- 직접 체감한 호남 민심은▲한 달 이상을 지역민과 부대끼며 민심을 들었다. 지역 민심의 요구는 ‘이 대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집약됐다. 민심이 제시한 길은 탈당이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마련하라는 것이 지역 민심이었다.
- 지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이 높다.▲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지마 물같이’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17대 총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 키울 사람은 키워야 한다. 정치 신인들도 마찬가지다. 민생에 전착한 삶의 이력과 정치적 내공을 갖춘, 단단하게 준비된 신인들을 등용해야 한다.
- 더민주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호남 정치권이 중



분열 원인 리더십 부재와 친노 탓
문대표 설득 불구 패권 벽 못넘어

국회의원 ‘문지마 물같이’는 안돼
엄중한 평가로 키울 사람 키워야

새누리에 총선 어부지리 안주려면
상황따라 더민주와 연대 검토 필요

- 속적 구도로 가지 않는냐는 우려가 있다.▲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의 지지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호남 정신이 당의 토대가 될 것이며 호남의 목소리가 적극 구현돼야 한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의 위상 강화는 스스로 이뤄내야 내야 한다. 치열한 도전과 응전만이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 국민의당에서 새누리당 인사들 참여 및 영입이 논란이다.▲새누리당 출신이라고 원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

- 하지 않지만 호남 소외, 민주주의 후퇴 등 여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정체성의 문제다.
- 신당 세력의 통합이 지지부진하다.▲통합은 꼭 이뤄져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설 연휴 전에는 통합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 국민의 당 중심의 흡수통합인가.▲당 대 당 통합이 난제일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통합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세력이 가장 큰 국민의당에서 먼저 내려놓는 통합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더민주와 총선 연대는.▲연대는 정치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쥐서는 안 된다. 상황과 지역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더민주에서 총선 연대를 믿고 버티는 것 같이 미묘한 부분이 있다.
- 국민의 당 공천 방법에 대한 입장은.▲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이 가미돼야 한다. 경선이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교체 여론이 높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 국민의당에서 기소 전력을 이유로 영입을 취소, 논란이 되고 있다.▲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됐다는 이유로만 영입을 취소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
-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 당 참여에 대한 입장은.▲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총선 전망은.▲총선이 90일이나 남아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1야당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선부르게 승리를 말하기 보다는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다당제에 대한 입장은▲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본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호남에서도 정당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으로 결집된다면 더민주는 과거 ‘꼬마 민주당’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선을 앞두고 다시 통합을 통해 양당 체제로 갈 수도 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생존한다면 대선 연대를 통해 연합정부를 만드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 국민의당 선결 과제를 꼽는다면.▲당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중도를 지향하지만 혼란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콘텐츠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영입도 시급하다.
-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우선 많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 호남 정치의 중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여는 역할을 하겠다. 야권이 4월 총선에서 승리,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모든 것을 걸고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살리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9개 아파트 단지서 99건 하자·부실 적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사

방수·충간소음·단열재 등 지적

전남에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는 방수, 마감, 지하주차장, 충간소음, 단열재, 안전난간 등에 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틀이나 타일 틈새가 벌어져있거나 콘크리트 먼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있었다.

시공, 안전, 구조 등 11개 분야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지난해 첫 현장 검수를 벌인 결과 공동주택 품질에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4일 전라남도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군의 신청을 받아 목포·광양 3개 단지, 순천·나주·해남 1개 단지 등 모두 9개 단지(4731세대)를 현장 방문해 각 전문가들이 품질을 검수했다. 검수 결과 1개 단지 평균 11건에 해당하는 99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시정조치됐다. 최근 이웃 간 마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충간소음 예방과 관련 일부 업체에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검수단의 지적으로 방바닥 시공 시 소음완충재(패드)를 벽체 하부가

지 설치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 2012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아 검수 당시 공정을 76%를 보이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956세대)는 욕실 방수, 문틀·타일 틈새 충전 미흡, 썩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지하주차장 소화전 노출 등 건축계획·건축시공·안전·구조·기계·소방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지적을 받았다. 657세대 규모로 오는 3월 준공예정인 또다른 아파트 단지는 썩크대 방바닥 균열 보수, 발코니 부문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방바닥 균열 보수 후 마루 시공 등 13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됐다.

다른 아파트 단지도 최소 6건에서 12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건축과정에서 하거나 부실로 인해 건설업체와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 간 마찰·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남도는 자평하고 있다. 또 여러 건설업체와 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거나 부실을 드러나 기존 관행의 개선에도 기여했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건설공사 중인 56개 단지 총 공공정률 50% 이상, 내장공사 60% 이상을 마친 단지를 검수 대상으로 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청년창업 지원 본격 나섰다

윤시장 서울 창업센터 방문

성공 모델 발굴 방안 모색

광주시가 청년창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은 이날 배정현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서용득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서일권 청년센터장 등 20여 명과 함께 서울시 창업기관인 서울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모델 발굴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 일행은 서울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의 열악한 창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 시장은 “창업은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며 “오늘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준상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혜를 구하고, 지역성을 가진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일자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광주에도 일자리 대장정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시장 등은 TIPS TOWN(팁스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지역 스타트업(벤처신생)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와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청년창업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력 ▲광주지역 TIPS프로그램 유치 및 TIPS TOWN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협력 ▲광주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교육, IR 등) 개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연계 지원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지금까지 5면에 격주로 목요일에 게재됐던 ‘신형철 칼럼’과 ‘함정일 칼럼’을 오늘부터 17면(문화)으로 옮겨 심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해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곽 민 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 ·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호사 **곽 민 섭** 법률사무소

(062) 228 - 2266

광주 동구 지산로 70(동산빌딩 4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상,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길 70m 하나은행 B10 5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광주시 서산동